



무치악 환자에서 하악 임플란트 지지 피개의치에 의한 즉시 하중 부담에 관한 연구

김장욱*, 권공록, 최대균, 김형섭 |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

연구목적

무치악 환자에서 통상적인 총의치 치료 술식은 의치의 유지 및 안정성의 부족으로 기능시 어려움이 많다. 양악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, 의치의 유지 및 안정을 위해 이공 사이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, *magnetic attachment*를 부착한 하악 피개의치에 의해 즉시 부하를 가했을 때, 임플란트의 안정성 및 주위 조직의 반응,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였다.

연구방법

7명의 양악 무치악 환자(6명 남자 1명 여자)를 대상으로 2개의 SLA 표면 임플란트를 이공 사이에 식립 후 *magnetic attachment*를 피개의치 내면에 부착하여 즉시 부하를 가하였다. 임플란트 및 주위 조직의 반응을 관찰하고자 임플란트 식립 후 1주, 2주, 6주, 12주, 6개월 순으로 임상, RFA 및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다.

연구성적

1. 임플란트 생존율은 86%이었다.
2. 평균 수술 시간은 43분 이었고, *magnetic attachment*를 부착 후 의치를 *delivery*하는

데 걸린 시간은 평균 48분이었다.

3. 평균 ISQ값은 술 후 6주까지는 점차 감소하다가 그 이후는 증가추세를 보였다.
4. 평균 치조골(*crestal bone*)의 소실은 술후 6주에 가장 심했으며($1.22 \pm 0.72\text{mm}$),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.
5. 임플란트를 치조골정보다 깊게 식립한 경우, 임플란트의 길이와 직경이 작은 경우에 골 흡수가 더 큰 경향을 보였다.
6. 시간의 경과에 따른 *probing* 시 *bleeding* 빈도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.
7. 임플란트 식립 전후의 환자 만족도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의 증가를 나타냈고 특히 통증과 저작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.

결론

양악 무치악 환자에게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, *magnetic attachment*가 부착된 피개의치를 이용하여 즉시 기능을 시키는 임상 술식은 임플란트 및 주위조직의 안정적인 반응, 의치의 안정성 및 즉시 저작이 가능한 점에서 추천될 수 있는 새로운 시술 방법이라 생각된다.